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이민주 교수가 평복과 관복 두 개로 하면 안 되냐고 하자. 권오신 회장은 벽상공신으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창 화백은 평복과 관복 중 하나로 지금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권중달 교수는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권행만 편집국장은 대중회 실무자로서 걱정이 많다. 영정을 제작한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몇 사람이 결정할 시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여러 쪽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견 수렴과정 없이 지금 당장 결정해서 그린다면 만약 어떤 후손들이 이게 무슨 시조 영정이라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다 그려놓은 영정을 걸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올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년에도 붓을 들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본다. 1100년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권영찬 회장은 시조 영정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조 영정은 족친 중 상당수가 관심 가지게 되어 있다. 만약 후손 중 누군가 아니라고 하면 걸지 못할 수도 있다. 종보와 파종회 회장, 상임위원 등 여러 단계를 거치고 싶다.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하자고 말했다.

권중달 교수는 현재 자문위원회에 위원장이 없다. 위원장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행만 편집국장은 가정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로, 상임위원회, 파종회, 지역종친회, 부회장 과 장무위원 및 이사 등 임원진, 청장년회, 부녀회, 태사문화회, 문중 대표, 향교와 서원 및 성군관 관계자, 해외 족친까지 포함하는 거국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시조 영정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주 교수는 시의 내용과 관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관복과 평상복이 율배가 된다. 그림이 있고 관련된 글 있으면 같이 간다. 은둔한 군자상으로 그리면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안 그리라는 것이 기본이다.

박은순 교수는 시의 내용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첫 줄에 은거한 모습이 보인다. 이민주 교수는 시의 내용과 관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관복과 평상복이 율배가 된다. 그림이 있고 관련된 글 있으면 같이 간다. 은둔한 군자상으로 그리면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안 그리라는 것이 기본이다.

박은순 교수는 시의 내용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첫 줄에 은거한 모습이 보인다. 이민주 교수는 시의 내용과 관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관복과 평상복이 율배가 된다. 그림이 있고 관련된 글 있으면 같이 간다. 은둔한 군자상으로 그리면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안 그리라는 것이 기본이다.

박은순 교수는 시의 내용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첫 줄에 은거한 모습이 보인다. 이민주 교수는 시의 내용과 관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관복과 평상복이 율배가 된다. 그림이 있고 관련된 글 있으면 같이 간다. 은둔한 군자상으로 그리면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안 그리라는 것이 기본이다.

박은순 교수는 시의 내용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첫 줄에 은거한 모습이 보인다. 이민주 교수는 시의 내용과 관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관복과 평상복이 율배가 된다. 그림이 있고 관련된 글 있으면 같이 간다. 은둔한 군자상으로 그리면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안 그리라는 것이 기본이다.

박은순 교수는 시의 내용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첫 줄에 은거한 모습이 보인다. 이민주 교수는 시의 내용과 관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관복과 평상복이 율배가 된다. 그림이 있고 관련된 글 있으면 같이 간다. 은둔한 군자상으로 그리면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안 그리라는 것이 기본이다.

이민주 교수는 시의 내용과 관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관복과 평상복이 율배가 된다. 그림이 있고 관련된 글 있으면 같이 간다. 은둔한 군자상으로 그리면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안 그리라는 것이 기본이다.

이민주 교수는 시의 내용과 관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관복과 평상복이 율배가 된다. 그림이 있고 관련된 글 있으면 같이 간다. 은둔한 군자상으로 그리면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안 그리라는 것이 기본이다.

이민주 교수는 시의 내용과 관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관복과 평상복이 율배가 된다. 그림이 있고 관련된 글 있으면 같이 간다. 은둔한 군자상으로 그리면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안 그리라는 것이 기본이다.

이민주 교수는 시의 내용과 관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관복과 평상복이 율배가 된다. 그림이 있고 관련된 글 있으면 같이 간다. 은둔한 군자상으로 그리면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안 그리라는 것이 기본이다.

이민주 교수는 시의 내용과 관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관복과 평상복이 율배가 된다. 그림이 있고 관련된 글 있으면 같이 간다. 은둔한 군자상으로 그리면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안 그리라는 것이 기본이다.

이민주 교수는 시의 내용과 관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관복과 평상복이 율배가 된다. 그림이 있고 관련된 글 있으면 같이 간다. 은둔한 군자상으로 그리면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안 그리라는 것이 기본이다.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제2차 상임위원회가 5월 7일 11시 대중회 3층 회의실에서 권영찬 회장을 비롯하여 권영하·권철환 수석부회장, 권건중 상임부회장, 권광택, 권기수, 권병도, 권수웅, 권순구, 권오돈, 권용기, 권정걸, 권주연, 권준근, 권중수, 권태호 상임위원과 권오덕, 권혁창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권오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권영찬 회장은 원근 각지에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1년 동안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과 2024년도 예산 등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상임위 안이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고 전국 종친회에 기여하는 안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셨으면 하고 일반적으로 토론이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창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대중회 직원의 퇴직금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퇴직연금을 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과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권영세 국회의원과 5명에게 국회의원 당선패 증정패 그 동안 대중회 발전에 기여한 권중달 교수 등 4명의 공로자에게 공로패 증정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장학금 20명을 선발하여 정기총회 시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정관개정안에 대해 축소 심의를 진행했다. 2024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특히 권광택 상임위원은 사업 계획 중 지역종친회 및 청장년, 부녀회 활성화를 후원하는 사업은 후원만 하면 활성화가 안 된다. 이번 체육대회를 보니 예전에는 30여 개 이상의 지역이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30개 지역도 안되는 것 같다. 점점 줄고 있다. 그중에 전라도, 서울, 충청도는 침체되어 있으니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주 교수는 시의 내용과 관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관복과 평상복이 율배가 된다. 그림이 있고 관련된 글 있으면 같이 간다. 은둔한 군자상으로 그리면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안 그리라는 것이 기본이다.

정조공파 상평문중 추모원 건립 기념행사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조상님 75분을 한자리에 모셔 추모원(追慕園)을 건립, 기념행사를 가졌다.

안동권씨정조공파 여직(汝直) 상평(尙平)문중은 5월 26일 오전 10시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29-1 현지에서 권기복 상평문중회장을 비롯하여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영찬 대중회 전례위원장, 권오덕 대중회 안동사무국장, 종일,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후손 권오탁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시조님에 대한 망배, 경과보고에 이어 권기복 회장은 인사말에서 "문중의 숙원사업인 추모원이 완공되니 무한한 영광이며

앞으로도 선조의 얼과 전통을 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권철환 회장은 축사에서 "현장에 와보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이 어려운 공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존경스럽다"며 축하했다.

이러 권영찬 위원장 지휘 아래 권오익 국장의 집례에 따라 초헌관 권기복, 아헌관 권오형, 종헌관 권영만이 각각 헌작하고 종원들은 재배하였다.

정조공파 상평문중 추모원 건립은 작년 3월 상평정기총회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상님 75분의 묘소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이장추진위원회 7인을 구성, 그동안 장묘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용정산 자락 망향정 위쪽 능선에 터를 닦아 정조공파 후손인 25세 상평(1634년 9월 - 1677년 10월)의 자손들인 26세 2분, 27세 6분, 28세 10분, 29세 19분, 30세 37분 모두 75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앞으로 정일에 모여 조상님에 대한 예를 치르고 문중 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추모원은 타 문중의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산 교육장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고유제를 끝내고 현장에서 국밥, 떡, 과일 등으로 점심을 먹었으며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태월 2장과 우산 1개씩을 선물도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2024년 임원연석회의 개최

안동권씨 대중회 임원연석회의가 5월 13일 오전 11시에 고봉삼계탕 광화문점에서 권오형·권정일·권오윤·권오훈 부회장, 권영갑·권영익·권오윤·권도현·권기성·권선출 이사 등 임원들이 안동과 상주, 수원, 고양, 대전, 대구 등에서 30여 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권영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근 각지에서 참여한 주신 부회장과 이사와 장무위원께 고맙다. 여러분께서 열성적으로 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지역마다 인사드린다고 하나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주 뵈지 못해 죄송하다. 특별기

구를 설치해서 역사문화관광성지 벨트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김씨, 유씨, 장씨, 봉정사 등에 찾아가 협조를 구하고 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계도 용역비 들어 성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권기창 안동시장계도 경북도와 추진사항을 얘기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용 전 이사까지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

농동재사 주위에는 권원수 이사가 기증한 이팝나무 60그루를 식재했다. 소나무 50그루도 곧 식재할 예정이다. 여러분 덕분에 2억 중 5천만원을 갚았다. 빚 없는 대종회가 되도록 하겠다. 참여한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 열성적으로 도와주

부호장공파 제69회 경로잔치 개최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현중) 주최 제69회 경로잔치가 5월 20일 오전 11시 안동시 여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고문, 원로, 종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24절기의 하나 소만(小滿)인 이날 춤지도 덩지도 많은 전형적인 봄 날씨에 역대 파종회장을 역임하였던 권인호, 권병균, 권영건, 권주연 등 4명이 고문이 참석, 자리를 빛내 주었다.

권태욱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시조 묘소 및 파조위패 망배, 상음례, 공로장 증정, 파종회장 인사, 보학강좌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권현중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제7대 부호장공파회장으로 역임하면서 파종회에 공을 많이 세운 권주연 전 회장에 공로장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권현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로잔치에 종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파종회 발전을 위해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곧이어 강일호 법학 박사는 보학강좌에서 "현대의 제례문화"에 관하여 1시간가량 강의를 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



남 유림과 술한 한학자들의 열망에 정부와 경상남도, 합천군이 호응함으로써 장건하게 되었으며, 건립 공사는 2008년에 기공하여 2012년 봄에 완공·개원하였다.

서원의 제일 위에는 선생의 위패를 봉안한 송덕사(崇德祠)가 있고, 그 아래는 학문을 강론하는 강당인 승교당(承敎堂)이 자리해 있다. 이 승교당에서는 선생의 학문과 덕을 기리는 강학(講學)이 이어져 왔는데 이날도 한학자 허호구 선생의 서벽에 대한 강의가 열렸다.

부산종친회 사무국장 권재영

조상제사는 꼭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새며느리에게는 너무 가혹한 절차이고 형식적인 의례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사 개선안은 돌아간 날에 주과포(酒果脯)를 준비, 산소를 갖춰 성묘방으로 추모하고 돌아가신 날 전후도, 일요일 적정시간을 결정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국립안동대학교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전 성군관청년후도회중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군관 부관장, 안동문화원 부원장, 한국생명과학교육교 총동장직장을 각각 맡고 있다.

보학강좌가 끝나자 일원정 정자에서 경로 오찬행사가 이어졌다. 점심은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육회비빔밥을 비롯하여 묵어, 떡, 닭발수육, 수박, 딸기, 맥주, 소주, 음료수, 식혜 등 푸짐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었다. 이날 육회비빔밥과 음식은 권태욱 사무국장 부인, 권영익 운영위원 부인, 일원정 할머니 등 부녀회원 3명이 정성을 들어 만들었다.

이날 종일들로부터 받은 성금은 137만원이 들어왔다.

권현중 회장은 참석한 전 종일들에게 기념 태월 1장씩을 선물도 나누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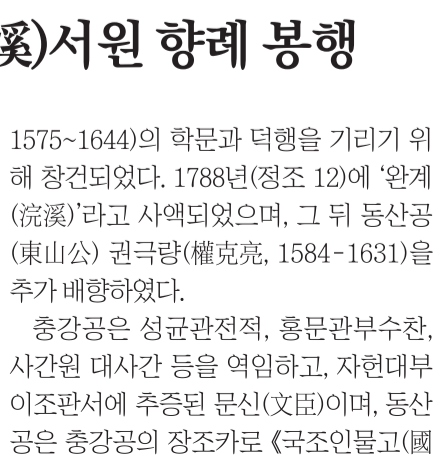
권영건 보도부장

경남 산청 완계(浣溪)서원 향례 봉행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에 위치한 완계(浣溪)서원의 감진년 향사가 지난 4월 13일(토) 10시에 후손 및 지역유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초헌관 권재형, 아헌관 이윤용, 종헌관 홍두표, 집례 하일규, 축신 김열이 행공하였다.

완계서원은 1614년(광해군 6)에 지방유림의 공으로 충강공(忠康公) 권도(權濤, 1575~1644)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창건되었다. 1788년(정조 12)에 '완계(浣溪)'라고 사액되었으며, 그 뒤 동산공(東山公) 권극량(權克亮, 1584 - 1631)을 추가 배향하였다.

충강공은 성군관전적, 훈민관부수찬, 시간위 대사간 등을 역임하고, 자헌대부 이조판서에 추증된 문신(文臣)이며, 동산공은 충강공의 장조카로 《국조인물고(國



추연 권용현 선생 위패를 모신

태동서원 감진년(2024) 향례 봉행

해마다 음력 3월 25일에는 영남 유학의 거봉(巨峯)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 1899~1988) 선생을 기리는 향례가 열린다. 올해도 지난 5월 3일 오전 10시에 경남 합천군 초계면 태동서원(泰東書院) 송덕사에서 향례가 열렸다. 이날 향례에는 초헌관 권재호 성군관 부관장을 필두로 하여 합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온 유림, 후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태동서원은 경남 합천군 초계에 소재하고 있으며, 평생을 오로지 유학의 기고일을 살다 가신 추연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후학들이 뜻을 모아 세웠으며, 서원의 이름에는 초계 태암산의 동쪽이라는 뜻과 동양의 도를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원의 설립은 유학자 추연 선생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할 터전을 세우려는 영

태동서원은 경남 합천군 초계에 소재하고 있으며, 평생을 오로지 유학의 기고일을 살다 가신 추연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후학들이 뜻을 모아 세웠으며, 서원의 이름에는 초계 태암산의 동쪽이라는 뜻과 동양의 도를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원의 설립은 유학자 추연 선생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할 터전을 세우려는 영



朝鮮人物考)에 기록된 참선비이다.

37년 권유식